

## 한국, 대만, 일본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

송 유 진\*\*

아시아 내에서의 혼인이동과 노동이동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한국, 대만, 일본은 이민자들의 주요 유입국으로 부상하였다. 최근 들어 한국, 대만, 일본 정부는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우호적인 사회분위기와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이민자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가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의 2003년 '국가정체성' 모듈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대만, 일본인들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와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기술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민자 수 증가에 대하여 대만인은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다음으로 일본, 한국 순이었다. 한국의 경우는 이민자에 대한 태도가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이민자에 대한 반감은 가장 낮은 반면 동질적인 민족정체성에 대한 태도는 가장 높다. 또한 이민자들이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높았으나 문화적인 다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가장 낮았다.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통하여 이민자 수 증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 개인의 연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대만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한국과 일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민자에 대한 가치관은 3개국 모두에서 이민자 수 증가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이민자에 대한 정책 수립에 있어서 가치관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 단어: 이민자, 태도 비교, 가치관, 국제이동

### I. 서론

그동안 아시아 국가들은 국제이동에 있어서 외국으로 이민자를 보내는 송출국의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아시아 내의 인구이동이 증가함에 따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 2006년 신진교수연구지원(2006-B00228)을 받아서 수행되었다. 또한 2007년 9월 13일-14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국인구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던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논문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한양대학교 김두섭 교수님과 익명의 심사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 E-mail: yjsong28@dau.ac.kr

라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 중에도 주요 송출국과 유입국의 구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주요 유입국은 일반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며, 한국, 대만, 일본이 대표적이다. 반면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 지역은 주요 송출국의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은 최근까지도 일본이나 서구로의 주요 송출국의 특성이 강하였으나 최근 동남아시아 이민자들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주요 유입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한국, 대만, 일본 정부는 이민자에 대한 정책과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 이민자들의 복지와 인권 및 이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민자들을 위한 정책과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국민들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이해함으로써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이나 사회제도가 개인의 가치관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개인의 태도가 정책 및 사회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개인들이 이민자에 대해 지니는 반감이 지나치게 높으면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특히 한국, 대만, 일본과 같이 이민자에 대한 정책이 안정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태도가 앞으로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생각된다. 유사한 맥락에서 마이다(Mayda, 2006)는 이민자에 대한 개인들의 태도가 국제이동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국가 국민들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가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이민자들을 끌어들이거나 혹은 배척하는 정책 및 제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자에 대한 개인들의 태도를 파악하고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는 주로 서구에서 활발히 수행되었다(Alba, Rumbaut, and Marotz, 2005; Bilal, Grether, and Melo, 2001; Facchini and Mayda, 2006; Hainmueller and Hiscox, 2007; Kessler, 2001; Mayda, 2006; O'Rourke and Sinnott, 2004; Scheve and Slaughter, 2001; Simon and Lynch, 1999).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서구 유럽과 미국에 초점을 맞추었고 국제비교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아시아 국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된 바 없다. 국내에서 수행된 소수의 연구들(김상학, 2004; 박수미·정기선, 2006)은 한국인들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였으나, 이는 한국인들의 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민자를 포함한 것일 뿐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 외국인과 이민자

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최근 발간된 황정미 외(2007)의 보고서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서구유럽과 미국에서 기존에 수행되었던 연구결과와 비교하였다. 따라서 최근에 동남아시아로부터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주요 유입국으로 부상한 유사한 경험을 지닌 한국, 대만, 일본을 비교하고자 하는 이 연구와는 차별성을 지닌다.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연구가 미미했던 원인은 한국, 대만, 일본과 같은 몇몇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주요 유입국으로 부상한 시기가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한국, 대만, 일본이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주요 유입국으로 등장한 현실을 고려할 때, 위 3개국의 국민들이 이민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니는지 비교분석하고 결정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이민자에 대한 정책 마련에 중요한 기초정보를 제시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의 2003년 '국가정체성' 모듈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대만, 일본인들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 및 결정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연구는 구체적인 가설을 검증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탐색적인 수준에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과 대만, 일본인들은 이민자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지니는가? 다양한 질문을 통하여 파악한 개인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가? 둘째, 개인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은 무엇이며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가? 셋째, 분석결과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

위와 같은 논의는 그동안 학문적 주목을 받지 못하였던 동아시아 국가의 개인들이 이민자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지니는지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시할 것이다. 또한 이는 향후 이민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1. 한국, 대만, 일본의 인구이동 현황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동안 한국, 대만, 일본에서 관찰되었던 국제이동은 주로 자국민들이 서구로 나가는 외항이동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국제이동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은 미미하였다. 그러나 지난 1990년대 초반 이후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로부터 한국, 대만, 일본으로 유입되는 이민자의 수가 급증하였다.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는 아시아 내의 이동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하여 아시아 국가들간의 경제발전 차이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IOM, 2005).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아직까지 높은 출산율로 인하여 급격한 인구성장을 보이지만 경제발전 속도는 이에 뒤지기 때문에 높은 실업률과 빈곤한 환경에 처해있다. 반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루었지만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인구구성의 변화를 겪음으로써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전반적인 생활수준 및 교육수준 향상으로 인한 3D 업종이 등장하게 되었다. 한국, 대만, 일본의 노동력 부족 현상은 1980년대부터 심화되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1990년대 초부터 산업연수생 제도와 인턴제도 등을 통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의 단기이동을 허용하는 정책을 제시하게 되었다(고모다, 2008; 설동훈·김윤태, 2004; 이정환·이성용, 2007). 이에 대하여 동남아시아인들은 노동의 기회를 찾아 동아시아로 대거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을 허용하는 분야는 제한적이다. 예를 들면 한국은 제조업, 건설업, 농림수산업, 일부 서비스업에 한하여 단기적인 계약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을 허용하였다. 대만 역시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을 건설업, 제조업, 건강 및 의료 분야와 가정 내 돌봄노동과 같은 분야에 제한하였다(IOM, 2005). 일본 역시 단순노동자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취업을 허용하였다(고모다, 2008).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로부터 동아시아 국가로의 노동이동 뿐 아니라 혼인이동도 증가하고 있다. 혼인이동이 증가하는 원인에 대하여 한국, 대만,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의 입장에서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젊은 여성들의 이혼향도, 출생성비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농촌 총각들이 결혼시장에서 비선호 대상으로 등장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한다(고모다, 2008; 김두섭, 2006; 김윤태·설동훈, 2005; 이혜경, 2005). 동남아시아의 입장에서는 빈곤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위하여, 혹은 가

족의 부담을 덜고 송금을 통하여 가족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여성들이 동아시아로의 혼인이동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의 경우는 한국, 대만, 일본의 경우와는 반대로 젊은 남성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혹은 외국으로 대거 이동하기 때문에 결혼적령기에 있는 농촌 여성들이 배우자를 찾기 어려운 성비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이것이 혼인이동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김현재, 2007). 혼인이동은 노동이동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취업을 원하는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혼인을 통하여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혼인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김현미,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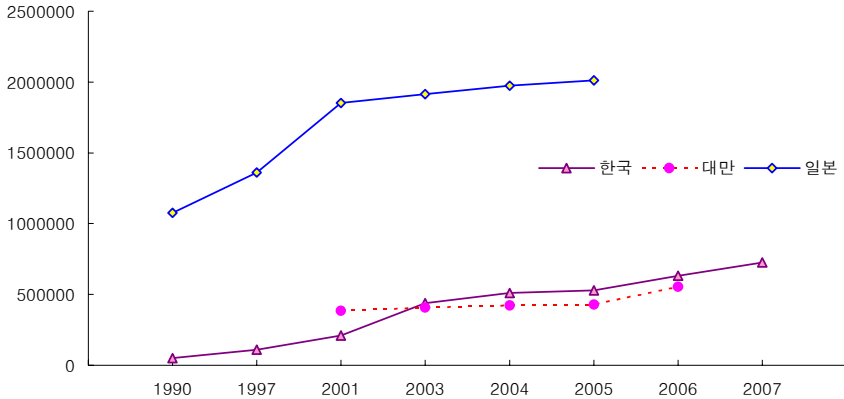
이렇듯 이민자의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민자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각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보아도 이민자에 대한 정의는 혼재된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공식적으로 국적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를 일컫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국적 취득과는 관계없이 노동이동이나 혼인이동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거주하는 외국인을 일컫는 경우도 있다. 혹은 적법성에 관계없이 해당국가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장기 체류자를 일컫기도 한다. 따라서 각국에서 제공하는 집계자료를 사용하여 국가 비교를 하기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민자의 수를 파악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각국의 등록외국인 자료를 살펴보면 증가 추이는 <그림 1>과 같다.<sup>1)</sup>

법무부 자료(2007)에 따르면 1990년 한국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약 49,507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07년에는 등록외국인 수가 725,000명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였다. 이 외에도 등록되지 않은 불법 체류자가 약 300,000명으로 추정되어 한국을 “외국인 100만명 시대”로 일컬게 되었다. 이는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된다. 대만은 등록외국인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2001년 약 384,000명에서 2006년 552,00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대만 내각부, 2006). 일본의 등록외국인 수는 한국이나 대만에 비하여 가장 높게 나타나며, 1990년 1,075,317명에서 2005년 2,011,555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25만명을 넘는다. 이는 일본 총인구 대비 1.63%에 해당한다(일본 통계청, 2006).

그러나 <그림 1>에 나타난 등록외국인 수 증가를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마다 이민자를 정의하는 방식이 상이하기 때

1) 한국, 대만, 일본 모두 외국인 등록은 3개월 이상 장기 체류자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그림 1>에서 대만의 자료가 2003년부터 제시되는 것은 이용 가능한 자료의 제약 때문일 뿐 대만의 이민자 유입의 역사가 짧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lt;그림 1&gt; 등록외국인 수 증가 추이: 1990-2007



자료: 한국 법무부(2007), 대만 내각부(2006), 일본 통계국(2006).

문이다. 가령 대만의 경우는 중국에서 유입된 이민자들이 최근에 입국하는 이민자들의 대다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이민자 또는 외국인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림 1>에서 나타난 대만의 등록외국인 수는 과소 추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재일교포와 같이 여러 세대에 걸쳐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old-comers)과 최근에 입국한 이민자들(new-comers)을 모두 등록외국인에 포함한다. 즉 일본의 자료는 등록외국인 수를 과대 추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민자에 대한 상이한 정의는 국가간 비교연구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이민자로 생각하는 주관적인 정의와 국가에서 이민자로 분류하는 공식적인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간극이 발생하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등록외국인들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대만, 일본 모두 노동이동을 통하여 이주해 온 이민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는 2007년 보고된 725,000명 중 56%는 노동이민자, 14%는 혼인이민자, 유학생이 7%, 나머지는 기타에 해당한다(법무부, 2007).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의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12월 말 기준으로 2%에 달한다(IOM, 2005). 대만의 경우는 2002년 등록된 405,751명의 외국인 중 62%가 노동이민자, 14%가 혼인이동을 통하여 입국한 이민자, 나머지는 기타에 해당하였다(설동훈 외, 2005). 일본 역시 약 200만에 가까운 등록외국인 중 약 40% 가량이

노동이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일본 통계청, 2006). 최근에는 혼인이동을 통한 이민자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은 2006년 전체 결혼건수 중 12%가 국제결혼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7). 대만은 2003년에 이미 전체 결혼건수 중 32%가 국제결혼에 해당하였다. 반면 일본은 2003년 전체 결혼건수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5%에 불과하였다(설동훈 외, 200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이동과 혼인이동을 통하여 한국, 대만, 일본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의 수는 이미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장기 체류를 하며 국적 취득을 목표로 함을 가정할 때, 한국, 대만, 일본은 가까운 장래에 다민족 사회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선행연구 고찰

기존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 경제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이 대두된다. 이민자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활발히 수행되었고, 따라서 노동이동에 의한 이민자들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다. 이러한 배경 때문인지 초기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한다(Bilal et al., 2003; Kessler, 2001; Scheve and Slaughter, 2001).

즉 노동시장경쟁(labor market competition) 가설에 의존하여 이민자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이민자들이 해당국가의 자국민에 비하여 어떤 기술을 지니고 어떤 직종으로 진출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가령 이민자들의 기술이 자국민들보다 낮을 경우, 기술수준이 높은 개인들은 이민자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지니지만 기술수준이 낮은 개인들은 이민자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곧 이민자들과 유사한 기술수준을 지닌 개인들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및 위협을 감지하여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다고 풀이된다.

파치니와 마이다(Facchini and Mayda, 2006) 역시 이민자들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요인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노동시장경쟁이나 그로 인한 임금 하락 압력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이민자들을 위하여 마련하는 정책 집행에 요구되는 세금을 이 개인들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에는 경제적인 요인 뿐 아니라 문화적 요인(예: 가치관)의 중요성을 강

조하는 논의가 등장하고 있다(Alba, Rumbaut, and Marotz, 2005; Simon and Lynch, 1999). 사이몬과 린치(Simon and Lynch, 1999)는 서구 7개국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개개인이 지니는 국가정체성에 대한 가치관이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즉 강한 국가정체성을 지닌 개인들은 이민자의 유입이 국가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한다고 생각하여 이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다는 것이다. 알바와 동료들(Alba et al., 2005)은 미국의 일반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 자료를 활용하여 미국인들이 지니는 인종과 민족 구성에 대한 왜곡된 사고가 이민자들과 소수민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낳는다고 보고하였다. 예를 들면 미국인들은 인구 구성에 있어서 소수민족이나 이민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대 해석하여 이민자들에 대한 막연한 위협감과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것이다.

박수미와 정기선(2006)의 연구는 개인이 지니는 전반적인 가치관과 이민자를 포함한 소수자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평등과 사회정의를 강조하는 보편적인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일수록 소수자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권력과 권위를 추구하는 가치관을 지는 사람들일수록 소수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인물러와 히스콕(Hainmueller and Hiscox, 2007) 역시 개인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는 가치관의 영향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개인의 교육수준을 통하여 가치관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다. 예를 들면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가치관을 지니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연구들이 개인들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의 결정요인을 파악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이나 문화적인 측면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 수행된 소수의 연구는 경제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에 모두 주목하였다(Mayda, 2006; O'Rourke and Sinnott, 2004). 노동시장에 대한 고려와 같은 경제적인 측면은 물론 개인이 지니는 이민자에 대한 가치관과 국가정체성, 자긍심, 다문화 수용 등에 대한 가치관들이 이민자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서구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설동훈(1997)은 한 논문에서 한국인들은 노동이민자들에 대해 막연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태도는 적대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에 대한 근거 없는 부정적인 편견 -예를 들면 이민자들은 게으르다, 지저분



하다, 비효율적이다- 이라고 평가하였다.

최근에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들(김상학, 2004; 황정미 외, 2007)은 소수자 혹은 외국인에 대한 태도를 분석함에 있어서 '사회적 거리감'이라는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사회심리학적인 접근으로 외국인이나 타민족에 대한 평가는 논리적인 분석보다 감성적인 평가의 결과임을 전제한다. 따라서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얼마나 친밀감을 느끼는가를 다양한 측면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할 결과 한국인들은 선진국 출신(예: 미국)에게 높은 친밀감을 느끼고 후진국 출신(예: 동남아시아)들에게는 낮은 친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는 출신국에 따라 이중적임이 드러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황정미 외, 2007).

이 연구는 한국, 대만, 일본인들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비교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가설을 검증하지는 않지만, 사회심리학적인 측면이 아닌 개인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과 이민자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들이 어떤 연관성을 보이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 Ⅲ. 자료와 연구방법

이 연구는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의 2003년 '국가정체성' 모듈 자료를 활용하였다.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은 가입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국가정체성' 모듈은 1995년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국가정체성' 모듈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가 최초로 수집된 것이 2003년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2003년 모듈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sup>2)</sup>

개인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당신은 앞으로 당신의 나라에서 이민자(ISSP 조사에서는 이민자를 정착하기 위하여 입국한 외국인으로 정의함)의 수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문항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선택 항목은 다음의 5가지 -1)

2) ISSP 2003년 자료에는 총 43개국(유럽,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아랍국가 포함)의 44,170명의 응답자들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었다. 이 연구는 이 중에서 한국, 대만, 일본의 자료만 사용하였다. 한국, 대만, 일본은 모두 층화표집법을 사용하였고 조사원에 의한 대면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ISSP에 포함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응답자의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한국은 18세 이상, 대만은 19세 이상, 일본은 16세 이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약간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약간 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많이 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를 포함한다. 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질문하는 문항들이 많았지만 이 문항을 종속변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선택한 이유는 이민자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가장 종합적으로 반영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문항은 1995년 ISSP ‘국가정체성’ 모듈을 활용한 기타 선행 연구들에서도 종속변수로 활용되었다(Facchini and Mayda, 2006; Mayda, 2006; O'Rourke and Sinnott, 2004). 이 연구에서는 위의 문항을 활용하여 “이민자 선호”라는 새로운 명목변수를 생성하여 이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sup>3)</sup>

위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질문한 문항들 중 몇 가지를 선택하여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이민자에 대한 다음의 진술들에 대하여 당신은 어느 정도 동의합니까? 1) 이민자들은 범죄율을 증가시킨다, 2) 이민자들은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들여오으로써 나라를 발전시킨다, 3) 이민자들은 일반적으로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가 포함된다. 더불어 민족 자부심과 민족 정체성에 관한 문항도 활용하였는데, 민족 자부심에 대한 문항은 “나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의 시민이 되고 싶다”이다. 민족 정체성에 대한 문항은 “어떤 이들은 진정한 이 나라의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위 진술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이다. 위의 문항들에 대한 선택 항목은 동의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된 것이다.<sup>4)</sup>

우선적으로 위의 문항들에 대한 응답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대만, 일본인들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였다. 더불어 “이민자 선호” 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통하여 개인의 어떤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가치관(민족 자부심, 민족 정체성, 그 외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본 이민자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관)이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 장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3) “이민자 선호” 변수는 ‘모르겠다’와 무응답을 제외하고 선택항목 중 1, 2, 3을 1로 코딩하고 4, 5는 0으로 코딩하여 생성하였다. 그러나 <표 2>에서는 각국의 동의하는 응답률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하여 동의, 중립, 동의하지 않음의 3 항목에 대한 응답률을 제시하였다.

4) 이 문항들 역시 ‘모르겠다’와 무응답을 제외하고 선택항목 중 중립의견을 포함하여 동의하는 항목들을 1로 코딩하고 나머지 항목들을 0으로 코딩하였다.

## IV. 결과

〈표 1〉은 한국, 대만, 일본 응답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시한다. 조사에 포함된 총 응답자 수는 한국 1,315명(응답률 66%), 대만 2,016명(응답률 46%), 일본 1,102명(응답률 61%)으로 상이하다. 각 질문에 대한 결측치를 제외한 후 이 논문의 분석에 실제로 사용된 응답자의 수는 한국 1,113명, 대만 1,595명, 일본 728명이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한국은 여성의 비율이 높은 편이나 대만과 일본은 남성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평균연령은 한국과 대만은 40대 초반으로 나타나며 일본은 50세 정도로 가장 높다. 평균 교육년수는 전반적으로 유사하지만 일본이 약간 높게 나타난다. 평균 교육년수 뿐 아니라 응답자들의 교육년수 분포를 살펴봐도 일본의 경우만 유일하게 무학이나 평균 교육년수 1-4년에 해당하는 응답이 관찰되지 않았다.

직업의 분포는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가 관찰된다. 가령 전문·준전문직 및 사무직의 비율이 한국과 대만은 24.7%, 23.1%로 유사한 편이나 일본은 15.0%로 낮다. 반면 서비스직의 비율은 한국이 2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대만과 일본은 22.5%, 21.8%로 유사하다. 단순노동 및 기타의 경우는 한국과 일본이 10%대 초반을 차지하고 대만은 21%에 해당한다. 농어업, 광업 및 수산업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학생과 전업주부를 포함한 무직의 경우는 한국과 대만은 20%로 동일하게 나타나나 일본은 39.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와 같은 응답자들의 특성, 특히 평균연령, 평균 교육년수, 직업분포는 각국의

〈표 1〉 한국, 대만, 일본 응답자들의 특성

		한국	대만	일본
성별	남성	44.0	52.9	53.9
	여성	56.0	47.1	46.1
평균연령		41.3	42.8	50.1
평균 교육년수		11.9	10.6	12.2
직업	전문·준전문직, 사무직	24.7	23.1	15.0
	서비스직	28.1	21.8	22.5
	단순노동 및 기타	12.4	21.0	10.3
	농어업, 광업, 수산업	14.7	14.0	12.4
	무직	20.1	20.1	39.8
총 사례수		1,113	1,595	728

특성 및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민자에 관한 다양한 진술에 대하여 한국, 대만, 일본 응답자들이 어떤 태도를 지니는지에 대한 기술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향후 이민자의 수 증가에 대한 각국 응답자들의 응답을 비교하여 보면, 대만인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낮고(5%) 다음으로 일본(14.3%), 한국(25.5%) 순서로 나타난다. 중립 의견을 포함해도 순서는 동일하다. 즉 이민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대만인들이 가장 반대하는 편이며 일본은 중간, 한국은 가장 허용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각 국가의 이민자 유입 경험 및 역사와 관련되는 것은 아닌지 추정할 수 있다.

대만과 일본은 한국에 비하여 이민자 유입의 경험을 일찍 시작하였다. 특히 대만의 경우는 결혼이민자가 전체 결혼 건수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외국인 신부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대만인들은 이미 자신들의 국가에 이민자의 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이민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 아닌지 생각된다. 반면 한국은 본격적인 이민자의 유입이 비교적 최근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민자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지 생각된다.

그 외 이민자에 관한 다양한 진술에 대하여 대만과 일본 응답자들은 한국 응답자들에 비하여 비교적 유사한 태도를 보인다. 가령 '이민자가 범죄율을 증가시킨

<표 2> 한국, 대만, 일본 응답자들의 이민자 관련 태도

		한국	대만	일본
앞으로 이민자 수가 증가해야 한다	동의	25.5	5.0	14.3
	중립	39.0	20.2	35.9
	동의 안함	35.5	74.8	49.8
이민자는 범죄율을 높인다	동의	35.0	65.0	74.3
	동의 안함	65.0	35.0	25.7
이민자는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	동의	55.0	35.7	36.1
	동의 안함	45.0	64.3	64.3
이민자는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여 나라를 발전시킨다	동의	28.7	55.6	19.6
	동의 안함	71.3	44.4	80.4
다시 태어나도 이 나라 국민이 되고 싶다	동의	71.1	79.8	85.0
	동의 안함	28.9	20.2	15.0
이 나라의 진정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동의	80.1	67.8	77.1
	동의 안함	19.9	32.2	22.9
총 사례수		1,113	1,595	728

다'는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진술에 대만(65%)과 일본(74%) 응답자들은 과반수 이상의 높은 찬성률을 나타낸다. 반면 한국 응답자들은 이 진술에 대하여 35%의 찬성률을 보인다. '이민자가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민자에 대한 긍정적인 진술에 대해서는 대만과 일본 응답자들이 약 36% 정도의 낮은 찬성률을 보이고, 한국 응답자들은 55%의 높은 찬성률을 나타낸다. 즉 대만과 일본 응답자들은 이민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한국 응답자들은 이민자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민자가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여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진술에 대해서는 위의 양상과는 다른 응답이 관찰된다. 즉 이민자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파악된 대만인들은 위의 진술에 대하여 약 56%의 높은 찬성률을 보인 반면, 이민자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생각된 한국인들은 29%의 다소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일본 응답자들은 위의 진술에 대하여 약 20%의 찬성률을 보임으로써 이민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위와 같은 기술분석 결과에 대하여 왜 국가별로 응답의 차이가 나타나며 한국과 대만 응답자들은 왜 이민자에 대하여 약간의 복합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단정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만인들의 경우는 이민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기는 하지만 다수의 이민자들과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오는 경험을 하면서 이들의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지닌 것이 아닌지 생각된다. 반면 한국인들은 이민자들이 노동이동을 통하여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들의 문화를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적인 태도가 약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한국인들이 일반적인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과반수를 웃돌 정도로 높은 반면 외국인 이주자들이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한다는 구체적인 진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률이 24% 가량으로 줄어든다는 기존 연구결과(황정미 외, 2007)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추상적인 수준에서 인정하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태도와 구체적인 수준에서 인정하는 이민자들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기여에 대한 태도에는 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민족 자부심을 나타내는 진술에 대해서는 한국(71%), 대만(80%), 일본(85%) 응답자 모두 높은 찬성률을 나타냈다. 진정한 민족의 조건으로 자국에서 태어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진술에 대해서도 한국(80%), 대만(68%), 일본(77%) 응답자 모두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이러한 응답을 종합해 보면 일본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인다. 즉 이민자에 대해서 전반

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높은 민족 자부심을 나타내고 자국에서 태어나는 것이 진정한 민족의 조건으로 중요하다는 진술에 높은 찬성률을 보인다. 반면 대만과 한국은 복합적인 태도를 나타내는데, 그 양상은 한국 응답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한국 응답자들은 이민자 수 증가에 대해서 가장 허용적이고 이민자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지만, 이민자의 문화를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낮은 찬성률을 보이고 진정한 민족의 조건으로 자국에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진술에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태도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위에서 나타난 복합적인 응답의 양상은 한국인들이 자국의 부족한 노동력과 배우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이들을 진정한 민족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의 문화를 수용하면서 어울려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황정미 외(2007)의 조사결과 역시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에 대해 지니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즉 한국인들은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권리를 인정하고 배려를 해야 하지만 이들을 임시체류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들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는 상당히 선별적으로 혹은 이기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생각된다. 필요에 의하여 이민자들을 받아들여기는 하지만 이들을 진정한 자국민으로 인정하고 포용하려는 태도가 약하다면 이민자의 수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이민자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 마련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대만, 일본 응답자들의 향후 이민자 수 증가에 대한 태도(이민자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이항 로지스틱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교육수준은 가치관을 반영하는 요인으로 고려한 경우도 있다(Hainmueller and Hiscox, 2007). 또한 직업은 기존 서구 연구들에서 노동시장 경쟁 가설에 따라 이민자 선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으로 고려하기도 하였다. 즉 이민자 선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때 직업을 경제적인 요인으로, 그 외 이민자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을 비경제적인 요인으로 대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의 대비를 통한 가설 검증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요인들이 이민자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직업을 개인적 특성으로 고려하였다.

<표 3> 이민자 수 증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 대만, 일본

	한국	대만	일본
성별(여성)			
남성	0.17	0.24	0.21
연령	-0.01**	-0.01**	-0.02***
교육년수	0.02	0.05**	0.06
개인의 특성			
직업(전문·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0.21	-0.12	-0.34
단순노동 및 기타	-0.78***	-0.52**	0.20
농어업, 광업, 수산업	-0.49**	-0.35	-0.66**
무직	-0.18	-0.07	-0.24
민족 자부심	-0.18	-0.25	-0.54**
민족 정체성(자국 출생의 중요성)	-0.41**	-0.16	-0.38
가치관			
이민자와 범죄율 증가	-0.84***	-1.12***	-1.40***
이민자의 경제발전 기여	0.70***	0.85***	0.52***
이민자의 다양한 문화 소개	0.54***	0.38***	0.83***
Likelihood ratio $\chi^2$	163.2***	283.8***	179.7***
총 사례수	1,078	1,595	728

주: \*p<0.05, \*\*p<0.01, \*\*\*p<0.001

한국, 대만, 일본 응답자들의 이민자 수 증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통계적 유의미성에는 약간의 차이가 관찰되지만 방향성은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연령은 한국, 대만, 일본 모두에서 이민자 수 증가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이민자 수 증가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대만의 경우에만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였다.

직업의 효과를 살펴보면 전문·준전문 및 사무직에 비하여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민자 수 증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것은 유사하다. 그러나 국가별로 통계적 유의미성에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가령 한국의 경우는 단순노동 및 기타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농어업, 광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응답이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나타내었고 대만은 단순노동 및 기타, 일본은 농어업, 광업, 수산업 종사자들의 응답이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였다. 위의 결과에 대하여 단정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경쟁 가설을 한국, 대만, 일본인들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해석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국과 대

만,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노동이민자들이 단순노동 및 기타직, 혹은 농어업, 광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자국민들은 이민자들 때문에 자신들의 직장을 잃거나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염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민자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지닐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이민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에 종사하며 이들이 각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민자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과 민족 자부심 및 민족정체성의 영향을 살펴보면, 민족 자부심과 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이민자 수 증가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족 자부심의 효과는 일본의 경우에만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였고, 민족정체성의 효과는 한국의 경우에만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였다. 이민자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 중 '이민자는 범죄율을 증가시킨다'는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이민자 수 증가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한국, 대만, 일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 외 '이민자는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와 '이민자는 다양한 문화를 소개한다'는 이민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이민자 수 증가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국, 대만, 일본 모두에서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보였다.

## V. 논의 및 제언

이 연구는 최근에 국제이동의 주요 유입국으로 등장한 한국, 대만, 일본인들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노동이동과 혼인이동을 통한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이민자들의 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 대만, 일본 정부는 새로운 과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국제이동은 과거에도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체류하거나 정착하는 형태의 이민자들의 등장은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들의 복지와 사회통합 등 다양한 정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이동이나 이민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민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부족할 뿐 아니라 이민자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지 않고 이민자에 대한 자국민들의 태도에 대한 분석과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에 서구에서 행해졌던 연구처럼 개인의 이민자들에 대



한 태도를 분석함에 있어 경제적인 요인과 문화적인 요인(가치관)의 영향을 비교하고 구체적인 가설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국, 대만, 일본인들은 이민자에 대하여 어떤 태도들을 지니고 있으며 향후 이민자 수 증가에 대한 태도에는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적인 수준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제비교를 위하여 ISSP 2003년 '민족정체성' 모듈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만인들은 '이민자들이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들여와서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진술에 높이 동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민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일본인들 역시 이민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한국인들은 이민자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그 외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다소 모순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가령 '이민자가 범죄율을 증가시킨다'는 부정적인 진술에는 가장 반대하였으며 '이민자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여기까지만 보면 한국인들이 이민자에 대하여 상당히 호의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민자가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들여와서 국가를 발전시킨다'라는 진술에는 가장 낮게 동의하며, '진정한 민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국에서의 출생이 중요하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가장 높게 동의함으로써 한국인들이 이민자에 대하여 일면으로는 호의적이지만 일면으로는 배타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술분석에 이어 향후 이민자 수 증가에 대한 태도를 '이민자 선호'로 보고 이에 대하여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한국, 대만, 일본 3개국 모두에서 연령은 이민자 선호에 부정적인 연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이민자 선호에 긍정적인 연관성을 지니지만 이는 대만에서만 통계적 유의미성이 관찰되었다. 직업의 경우에는 한국과 대만에서는 단순노무 및 기타와 농어업, 광업, 수산업 종사자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일본에서는 농어업, 광업, 수산업 종사자만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 자부심과 민족정체성은 각각 일본과 한국에서만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였으나, 그 외 이민자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들은 이민자 수 증가에 대하여 한국, 대만, 일본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따라서 이민자에 대하여 어떠한 가치관과 태도를 지니는지가 향후 이민자 수 증가에 대한 태도와 이민자를 수용하는 태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민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에 앞서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민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홍보하고 교육하며 이민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서로 이해하는 기회

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한국, 대만, 일본을 중심으로 이민자에 대한 태도 분석 연구가 미미한 실정에서 탐색적인 수준에서나마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 사용한 ISSP 자료는 이민자의 다양한 특성, 예를 들면 이민자들의 출신국가와 유입 경로 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 설문지에서 이민자를 '정착하기 위하여 입국한 외국인'으로 정의하였지만 이 정의 자체도 상당히 모호하다. 개인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는 이들의 출신국가와 이들의 유입 경로(예: 노동이동이나 혼인이동이나)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동일하게 취업이나 혼인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라도 출신국에 따라 자국민들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 둘째, 설문지에서 이민자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였다 할지라도 각국의 응답자들이 구체적으로 이민자에 대하여 지니는 정의는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 대만, 일본은 이민자에 대하여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를 공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개개인이 생각하는 이민자에 대한 상이한 정의는 결과적으로 이들의 응답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셋째, 자료 분석 결과에 대하여 왜 한국, 대만, 일본인들이 이민자에 대하여 다른 응답을 보이며 왜 어떤 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어떤 요인은 그렇지 않는지 명확하게 해석을 하기가 어렵다. 이는 각국의 이민자 유입 경험과 역사, 그리고 이민자들의 특성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와 자료의 부족에 기인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는 각 국가의 거시적인 지표(경제적인 상황이나 인구구조 등)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시적인 지표들에 대한 논의가 언급되지 않은 점 역시 제한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이는 추후 연구의 과제로 남는다.

이와 같은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앞으로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가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심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에는 한국, 대만, 일본의 경우 이민자들의 실태 파악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고 이들의 복지를 위한 정책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민자들이 자국민들과 분리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함을 고려할 때, 이민자들에 대하여 자국민들이 어떤 태도를 지니고 왜 그러한 태도를 지니는지 면밀히 분석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고모다 마유미 (2008) “일본의 인구이동의 현황과 전망” 《민족연구》 34:28-55.
- 김두섭 (2006) “한국인 국제결혼 설명틀과 혼인 및 이혼신고자료의 분석” 《한국인구학》 29(1):25-56.
- 김상학 (2004)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1: 169-206.
- 김윤태·설동훈 (2005) “대만의 국제결혼 이민자 복지정책” 《중소연구》 107: 143-187.
- 김현미 (2006) “국제결혼의 전지구적 젠더정치학: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70: 10-37.
- 김현재 (2007) “베트남 여성의 한국으로의 결혼이민: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한 고찰” 《동아연구》 52: 219-254.
- 법무부 (2005) 《출입국관리 통계연보》.
- 법무부 (2007) 《체류외국인 100만명 돌파》 보도자료.
- 박수미·정기선 (2006)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70: 5-26.
- 설동훈 (1997)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의 상호작용” 《노동문제논집》 13: 131-158.
- 설동훈·김윤태 (2004) “대만의 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체계” 《중소연구》 103: 69-119.
- 설동훈·김윤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정기선·주영수·한건수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 복지부.
- 이정환·이성용 (2007)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 특성과 연구동향” 《한국인구학》 30(2): 147-168.
- 이혜경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5.
- 통계청 (2007) 《2006년 혼인신고 자료》 [www.nso.go.kr](http://www.nso.go.kr).
- 황정미·김이선·이명진·최현·이동주(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Alba, Richard, Ruben G. Rumbaut, and Karen Marotz (2005) “A Distorted

- Nation: Perceptions of Racial/Ethnic Group Sizes and Attitudes toward Immigrants and Other Minorities” *Social Forces* 84(2): 901-919.
- Bilal, Sanoussi, Jean-Marie Grether, and Jaime de Melo (2003) “Attitudes towards Immigration: A Trade-Theoretic Approach”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11(2): 253-267.
- Facchini, Giovanni and Anna Maria Mayda (2006) “Individual Attitudes towards Immigrants: Welfare State Determinants across Countries” [www.sais-jhu.edu/faculty/sandleris/Seminar/FacchiniMayda\\_\\_WelfareImm020706.pdf](http://www.sais-jhu.edu/faculty/sandleris/Seminar/FacchiniMayda__WelfareImm020706.pdf)
- Hainmueller, Jens and Michael J. Hiscox (2007) “Educated Preferences: Explaining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in Europe” *International Organization* 61(2):399-449.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05) *World Migration Report 2005: Costs and Benefits of International Migration*.
- Japan Statistics Bureau and Statistical Center (2006) *Statistical Yearbook 2005*.
- Kessler, Alan (2001) “Immigration, Economic Insecurity, and the Ambivalent American Public” *The Center for Comparative Immigration Working Paper*.
- Mayda, Anna Maria (2006) “Who is against Immigration?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of Individual Attitudes toward Immigrant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8(3): 510-530.
- Ministry of Interior, Taiwan (2006) *Statistics of Foreign Residents*.
- O’Rourke, Kevin H. and Richard Sinnott (2006) “The Determinants of Individual Attitudes towards Immigration”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2(4): 838-861.
- Scheve, Kenneth F. and Matthew J. Slaughter (2001) “Labor Market Competition and Individual Preferences over Immigration Polic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3(1): 133-145.
- Simon, Rita J. and James P. Lynch (1999) “A Comparative Assessment of Public Opinion toward Immigrants and Immigration Policies”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3(2): 455-467.

## ENGLISH ABSTRACTS

## A Comparative Analysis of Individual Attitudes toward Immigrants in Korea, Taiwan, and Japan

*Yoo-Jean Song*

This research examines individual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and the determinants of these attitudes in Korea, Taiwan, and Japan. Using 2003 National Identity module from ISSP data, descriptive statistics showed that Taiwan seems to be the most opposed to immigration, Japan in the middle, and Korea the least opposed. Despite being the least opposed to immigration, Koreans agreed most strongly with having a homogeneous sense of ethnic identity. In addition, Korean respondents saw immigrants are being good for the national economy, but not for cultural diversity.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age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individual's attitude toward immigrants in Korea, Taiwan, and Japan. Effects of educational attainment is only significant in Taiwan. Manual worker and others, and those who work in farming, mining, and fishing tend to have negative attitudes toward increases in number of immigrants. Also, individual's values toward immigrants/immigration are related to the individual's attitude toward increases in number of immigrants in Korea, Japan, and Taiwan.

**Key Words:** comparative analysis, attitudes, immigrants, international migration